

BBQ치킨 회장 아들 KBS 3천9백만불 소송

▶▶1면에 이어서

들 윤혜웅씨와 딸이 미국에서 유학생 활동을 하면서 회사돈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는 KBS 신설 보도 <끈질긴K>의 이세연 기자가 2018년 10월 보스턴을 비롯한 뉴저지주를 직접 방문해 취재해 간 내용이다.

이는 뉴저지에서 윤혜웅씨의 가디언 역할을 하며 미주법원에서 일했던 C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됐다. C씨는 생활비 영수증과 직접 작성한 일일 생활 보고서,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윤씨가 1년에 약 20만불 정도를 사용했으며 이 금액들은 모두 회사돈을 유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윤씨의 변호사 조셉 펄 (Joseph Perl)씨는 소송장에서 “KBS 보도의 유일한 제보자는 C씨였는데 윤씨와 여동생이 미 유학 및 생활비를 회사돈으로 받았다는 C씨의 거짓주장을 그대로 보도했고 C씨의 주장이 맞는지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안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소송장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뉴저지주에서 조기유학을 했으며 2016년 6월께 보스턴 근교로 이

사했다. 대학생인 윤씨는 하버드 예비 뉴 소재 BBQ울스톤점 운영관리를 동시에 맡고 있다. 윤씨는 또한 BBQ 지분 약 63%를 소유하고 있다. KBS 이세연 기자는 뉴저지에 이어 BBQ 울스톤점에서 윤씨의 행방을 취재하다 윤씨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그와 통화했던 당시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

소장에서 윤씨측은 매사추세츠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기록 녹음이 불법이며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을 들어 4만5천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KBS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국에서의 매출감소, 주가폭락을 들어 3천9백만불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윤씨측 조 펄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고객(윤씨)이 이번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울스톤 소재 민사 전문 제리 캐츠 (Gerry Katz) 변호사는 “매사추세츠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KBS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부분에서 KBS의 보도로만 매

출이 급락했다는 손해부분의 증명이 (미국적 사고로는) 어렵고 만약 KBS 탐사보도팀의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입증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캐츠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약 3년 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한 판결도 오래 걸릴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KBS가 패소하는 경우 어떻게든 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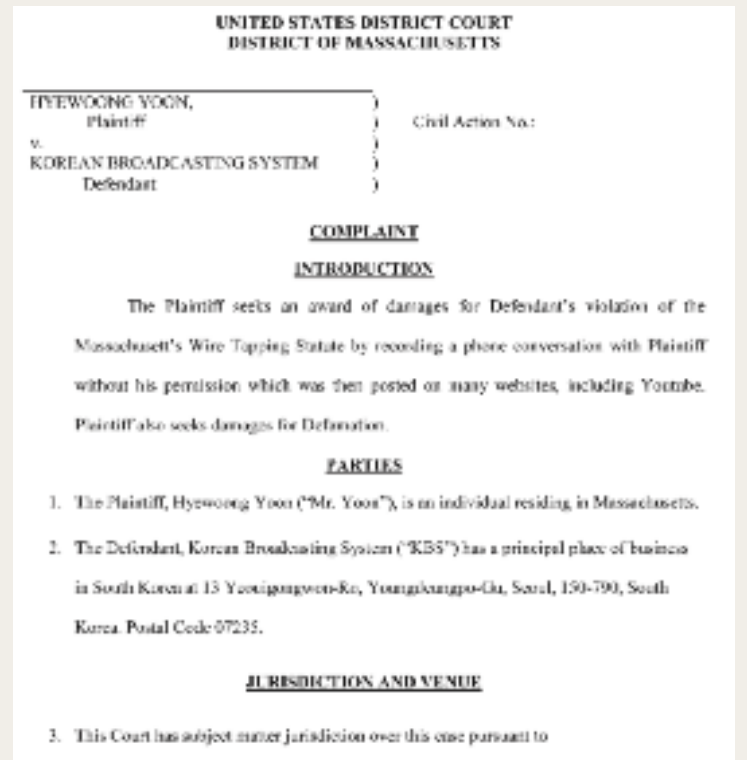
한편, 한국 경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제너시스 BBQ 그룹 윤홍근(63) 회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8년간 회사돈 20억원(20만불)을 빼돌려 자녀 유학 자금으로 쓴 업무상 횡령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BBQ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 전부터 법원에서 관련자의 금융계좌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으며 회계 서류 및 해외부서 관련자료 30여점을 압수해 갔다고 언론들은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KBS의 사건관련 보도 화면 캡처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 접수된 소송장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한인 업체, 주정부 혜택 적극 활용해야 성공

주정부 모든 외주계약의 10%는 소수민족 소수민족소상공인리스트 등록해야 혜택 매사추세츠 주정부 변호사 린다 챔피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시와 주정부에서 주는 그랜트 등 각종 혜택은 대부분이 백인들에게 돌아가며 흑인 또는 한인 커뮤니티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린다 챔피언씨는 “필요한 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서” 라고 지적했다.

옥타보스톤경제인협회가 하버드 스퀘어 소재 TAHS에서 23일 주최한 월말 정규포럼에서 린다 챔피언씨는 한인 소상공인들이 주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이용하는 자세한 방법을 소개했다.

일례로 매사추세츠내에서 집을 구입시 만약 납세포인트를 사용한 집인 경우 주정부의 그랜트를 받아 이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 보스톤의 경우 렌트해서 사는 세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납을 제거시 집주인

의 동의를 받으면 8천600달러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보스톤시는 사업체의 간판 등 보스톤 시내를 아름답게 하는 작업을 사업체가 진행할 경우 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그랜트로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그랜트가 있음에도 기득권 층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또한 어포터블 하우스 등 모든 정부 혜택 정보는 85%가 백인들에게 주어지며 나머지는 라틴계 그리고 아시안 중에서 비교적 활발한 중국계 등에게 돌아간다.

또한 주정부 및 각 지방정부가 하청을 주는 각종 사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스몰비즈니스퍼체이징프로그램(SBPP), 서플라이어다이버시티 프로그램(SDP)에 등록해야 한다. 이 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COMMBUYS에 먼저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옥타보스톤경제인협회가 주최한 23일 포럼에서 주정부 지원 및 혜택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주정부 변호사 린다 챔피언

진행하는 사업의 10%는 반드시 여성 또는 소수민족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선택해야 하므로 한인 사업체들의 리스트 등록은 필수적이다.

챔피언씨는 이러한 각종 혜택에 관한 정보외에도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과 사업자 등록방법 등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 세금, 그리고 워킹(Workers' Compansation) 등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옥타보스톤경제인협회 장진섭 회장은

“주정부 관계자가 한인사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추후 한인사회 전체 사업체를 상대로 하는 확대 강연회를 개최해 더 많은 한인사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린다 챔피언은 검찰출신 변호사로서 지난해 서퍽카운티 검사장직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후 현재 주정부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업제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 회원사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4:00 PM - 6:00 PM	8/5 - 8/23 Mon/Wed/Fri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백년의 봄을 아십니까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헌정음악회
100주년 기념식과 전시회 / 헌정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100년
을 맞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을 기
념하는 3.1절기념식과 헌정음악회가 텃스대 그
라노프뮤직센터에서 3월 16일 토요일 개최된다.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주최로 16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는 행사는 1부 3.1절 기념식과 2부 백
년의 봄 음악회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뉴잉글랜
드 한국학교 합창단이 참여해 애국가를 제창하
며 100년 전 사진영상과 한국 가곡을 함께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2부 '백년의 봄'에서는 Soloists of New
England Chamber Orchestra가 희망의 미래를
주제로 순국선열에 헌정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부터 모든 세대가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무료 행사다. 티켓은 선착순으로
300장 배부할 예정이다. 티켓에 대한 문의는 978-
821-9434 harmoniaboston@gmail.com에서 할 수
있다.

일시: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Tufts University,

Granoff Music Center

20 Talbot Ave., Medford, MA

Tickets: 무료 (300석 한정)

문의: 978-821-9434



올해 100년을 맞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을 기념하
는 3.1절기념식과 헌정음악회가 텃스대 그라노프뮤직센터에서
3월 16일 토요일 개최된다

harmoniaboston@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회장 후보 장우석 변호사 후원 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회장 출마를 선언한 장우석 후보의 후
원행사가 2일 개최된다.

“장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 지지모임)은 앤도버 소재 김동원 치과
원장 자택에서 2일 6시 후원모임을 개최한다

장우석 후보는 “오랜만에 한인사회에 활
기가 돌고 있다”며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새로운 한인
회, 노인을 공경하고 젊은이들을 우대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며 참여를 호소했다.
지지모임은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음식과 음
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2019년 3월 2일 토요일 저녁 6시

김동원 치과원장 자택

7 Partridge Hill Road, Andover, MA 01810

bostonkorean@hotmail.com

케이팝리뷰밴드 공연 노래할 사람 찾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케이
팝리뷰밴드가 케이팝 라이브공연을 케임브
리지 미들이스트클럽에서 패트리어츠데이
인 4월 15일 밤 8시에 갖는다. 이번 공연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BU 케이팝댄스 동아
리인 믹스(MiXx)가 출연해 케이팝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케이팝리뷰밴드는 독자들 중 오디
션을 통해 한 명에게 케이팝 리뷰 밴드 연주
에 맞춰 이날 공연에서 한국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오디션을 원하는 독자들은 자신이 노래
하는 비디오영상, 이름, 나이와 참가비 \$30
제출하면 오디션을 통해 한 명을 선발한다.
밴드측은 라이브 공연 기회 및 퍼포먼스 영
상을 선발된 참가자에게 전달한다.



참가문의 및 신청:

info@kpopreviewband.com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क्स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2019
건강도
부탁해
NEW YEAR SPECIALS
2월 20일 까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천능정 구입시
2번째 제품은 50% OFF
(*추가 선물은 한정됩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관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교사인증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에게 23일 이수증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남일교장, 박현아, 김연순, 김민정, 김지연, 홍순주, 남선경, 박미희, 조정현 교사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사인증과정 수료교사 격려

재외동포재단 교사 인증과정 이수자에 상금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한국학교(교장 남일)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한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에게 이수증 전달식을 23일 갖고 교사들을 격려했다.

봄학기 개학과 함께 열린 교사연수회 및 전체회의의 시간을 통해 열린 전달식에서 남일 교장은 이수증은 물론 학부모회(회장 김효정)에서 후원하는 격려금까지 함께 전달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스타디코리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한글학교 교

사인증과정은 1,2단계 및 활용과정으로 구성된다. 1단계는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학 이론, 한국어 교육론, 교육학이론, 한국어 교육의 실제 및 한국 역사와 문화 등 모두 25회(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인증과정 2단계는 총 50회(차시)로 되어 있다. 인증과정 1, 2단계를 마치면 활용과정으로 이어지는데 ‘효율적인 2세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자기 개발 및 재교육’에 필요한 온라인연수 프로그램이다.

이수증을 받은 교사는 김민정(세종5 겨울반), 김연순(고급1 금강반), 남선경

(고급3 백두반), 박현아(기초과정), 조정현(세종8 성인반), 홍순주(초급1 신라1반), 김지연(초급1 신라2반), 박미희(초급2 백제반) 교사와 박지인 2세 교사 등 9명이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는 뉴튼에 위치한 지역 최대 한국학교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경우 (508) 523-5389 및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2월 18일 우변소재 한인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선우 전 한인회장(사진 우측)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선우씨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보스톤 한인회장 4월 1일 새로 탄생

▶▶1면에 이어서

선관위원장 또는 간사 이외의 선관위원들에게 접수된 후보 등록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진영 후보 및 장우석 후보는 모두 이메일로 후보 등록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공탁금을 후보들이 선관위원장인 윤철호 노인회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최종 후보등록이 완료된다. 이번 선거는 이번 주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3월 31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에 걸쳐 직접 투표로 진행된다.

당초 선관위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과 관심을 높이는 방편의 하나로 우편투표를 고려했으나 결국 최

종 선관위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의 반대로 이번 선거에 적용치 않기로 했다.

선관위 9명은 한선우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 김병국(한미예술협회),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윤미자(민주평통), 이경해(시민협회), 이현경(한국학교협의회), 장수인(필하모니아보스톤), 채명희(국제선교회)위원으로 구성됐다. 24일 회의에는 한국을 방문중인 윤미자, 김성혁위원을 대신해 한순용, 김희선씨가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채명희위원을 대신해 윤경애씨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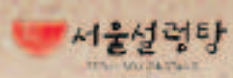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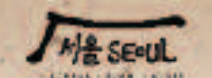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9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업소 탐방

보스톤 최초 한인 스킨앤바디 클리닉- 닥터홍 메드스파앤웰니스

보스톤 최초 한인 스킨 앤 바디 클리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갑자기 주름살이 늘었나요? 그렇다면 피부에 젊음을 선물하세요.

보스톤 최초 한인 스킨앤 바디 클리닉인 닥터홍 메드스파앤웰니스가 본격적인 풀타임 운영을 시작한다. 홍숙현 박사는 오랜 병원 근무 경험과 보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피부 및 상처 전문가다. 홍박사가 운영하는 스킨앤바디 클리닉은 최신 한국의 피부관리 방식을 미국 임상에서의 오랜 경험을 접목시킨 스킨클리닉이다.

2017년 3월부터 클리닉을 시작했지만 병원 일과 겹쳐야 했었기 때문에 일부 예약 고객들만 받아 파트타임으로만 운영해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인 클리닉에 집중할 계획이다.

스킨케어 항목으로는 하이드로 페이스 MD3 시스템이 있다.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 이 시스템을 집에 두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스킨케어를 받는다는 그 제품이다. 피부의 각질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피



피부 및 상처 전문가인 홍숙현 박사

부노화 방지 첨단 테크놀로지 제품이다.

한달에 한번씩 받는 이 스킨케어는 잔주름을 제거하고 피부의 독성도 제거하기 때문에 여드름도 없애는 역할을 한다. 미국내 스킨케어 방법중 보톡스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선호하는 피부관리방법이다.

주름살 제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보톡스나 디스포트다. 이 방법은 약물 처방에 의해 시술이 가능하며 피부 근육을 특정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더마 필러(Therma Filler)의 경우 피부의 볼륨을 높여 탄력이 있어 보이게 한다.

홍박사는 오랜 병원 시술 경험을 통해 보톡스와 더마필러 시술 때 비늘을 사용하지 않고 끝이 뭉툭한 마이크로 캐놀라(Micro Cannula)를 사용한다. 따라서 시술 후에도 멍이 들지 않으므로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텔셀 테크놀로지를 도입해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PRP(Platelet Rich Plasma)도 인기 시술 중의 하나다. 이는 피속에서 성장호르몬을 추출해서 다시 피부에 마이크로 니들링 펜을 사용해 주입하는 것이다. 미세한 바늘을 통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마이크로 챔버(작은 홀)에 성장인자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 시술은 가장 첨단적 시술이며 한국에서는 많이 시술되고 있는 스킨케어다.

BTL Axilis Ultra 피부비술도 한다. 이는 FDA 인가 기계로 초음파와 라디오주파수를 결합해서 처지는 피부를 당겨주고 지방을 분해해서 림프 시스템으로 나가게 한다. 이를 통해 복부, 둔부 다리 허벅지 군살 등도 빼주



보스톤 최초 한인 스킨앤바디 클리닉 닥터홍 메드스파앤웰니스의 고객들과 홍숙현 원장

고 몸매도 잡아준다.

특히 홍박사는 뉴트리션테라피도 병행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자주 접하는 수액주사(IV)를 시술한다. 테라피 전에 일본산 제충분모도 측정 기계로 체중의 분포도를 측정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분 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맥 수액주사를 통해 수분공급은 물론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안티옥시던트, 피부노화방지, 등 영양분을 함께 공급해 신체에 활력은 물론 독성제거 역할도 한다.

대략적인 가격은 하이드로페이스 MD를 \$149, 보톡스, 디스포 60유닛에 \$249, BTL 스킨타이트닝 \$99, PRP시술 \$449이다. 자세한 가격은 예약시 확인해야 한다.

홍박사 클리닉은 체중조절 및 탈모 복원 시술까지 제공한다. PRP 스텔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고 스프레이 약물 치료를 같이 한다. 또한 체중조절 시술의 경우 6개월 계약으로 진행한다. 호르몬 투여와 저칼로리 다이어트

를 병행한다. 이 체중조절 시술은 ACG 호르몬으로 단기간에 몸무게를 뺀다. 이 호르몬은 여성 임신상태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으로 신체 대사활리움을 두배로 올려준다. 4-6주에 대부분 10-20파운드가 감소한다.

홍박사는 “저열량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루에 600-800칼로리. 굶주림 직전까지 가야 내장지방이 빠진다.” 며 6개월 정도 약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리닉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뜨겁다. 비록 풀타임으로 시작한 것은 3개월 정도 되었지만 오픈에는 9명이 모두 5점 만점을 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약은 Meeinskinhealthwellness.com 웹사이트 또는 전화 617-202-6261, 855-208-2806로 예약할 수 있다. 주소는 46 Austin street #301, Newton, MA 02460 스타마켓 건너편 건물이다.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소나기 같은 시원한 웃음 코드 미국에서도 통했다! 영화 극한 직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송민정 기자 = 한국 영화 극한 직업이 지난 25일 기준 북미 박스 오피스 120만 달러(한화 13억 4천만원)를 돌파했다. 역대 북미 상영 한국 영화 흥행 9위로, 한국에서는 천사백만 관객을 동원한데 이어 계속되는 쾌거를 기록하고 있다. 이토록 극한 직업이 흥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에 대한 궁금함과 함께 보스톤에서 한국 영화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 Fenway의 Regal cinema에서 저녁 표를 예매, 극한 직업을 관람했다.

어찌 보면 새로운 것 없는, 다소 익숙한 듯한 내용인데, 일단 시작부터 중간중간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나 또한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으니, 이 영화의 사람들이 긴장을 쉽게 풀고 웃게 만드는 웃음 코드를 알고 있었다. 한 마디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웰 메이드 코믹 영화임에는 분명했다.

그럼, 이렇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먼저 나는 이병헌 감독의 완벽한 캐스팅을 꼽고 싶다. 믿고 보는 배우 류승룡, 진선규, 신하균, 오정세, 이동희 등 명 배우들의 탄탄하고 개성 넘치는 연기와 미스코리아 이미지를 완벽히 깨버린 이하늬의 코믹 연기, 동네 아줌마 신신애의 감초 연기까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캐리커의 존재감이 폭발적인 폭소 재미를 완성해 냈다.

배우들의 연기를 뽑아낸 이병헌 감독에 호기심이 옮겨진다. ‘힘내세요, 병헌씨’ 부터 ‘스물’ 을 연출한 감독으로, 2008년 ‘괴수 스캔들’ 의 각색가로 데뷔했다. 코미디 영화를 주로 만드는 감독으로, 어설픈 신과극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채워 넣는 것으로 유명하다. 극한 직업이 바로 그 성공의 예로, 이 훈훈한 외모로도 유명한 젊은 감독은 극한 직업으로 역대 천만 영화 감독 중 최연소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것은 웃픈 현실을 풍자하는 말, 말, 말이다. 극한 직업의 시나리오를 쓴 배세영 작가는 ‘완벽한 타인’ 의 작가로도 유명하다.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 (2007)’ 를 시작으로 주로 코미디와 드라마 장르의 각본과 각색을 해온 코미디 장르의 13년차 베테랑 작가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고반장의 명대사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는 배세영 작가에게서 탄생했다. 마약 조직 두목 이무배와 격투를 벌이는 중 고반장의 대사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 외에도 대한 민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풍자가 더해져, 의미 있고 재미난 대사들이 관객들을 웃음으로 흔들어 놓는다. 워트 넘치는 대사들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일까, 그래서 영화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감독의 고뇌와 의미있는 메시지, 작가의 매력적인 말 맛을 살린 대사, 배우들의 열연이 함께 어우러져 속 시원한 흥행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영화를 보고 돌아 오는 길, 방탄소년단의 RM이 유엔 연설을 통해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라고 던진 화두에 전 세계 팬들이 열렬히 반

응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렇게 우리의 한국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나 웃음 코드를 통해 한국과 세계가 같은 공감대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반응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건 나만의 생각일까?

여하간 한산한 월요일 저녁 보스톤 시내의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즐기니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편안한 착

각이 들었다. 한국 영화를 미국 영화관에서 보니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꿀잼(매우 재밌다는 표현)이다. 부디 그 꿀잼을 자주 자주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영화가 미국 땅에 많이 들어와서 흥행을 날리는 쾌거를 누리기를!

jinjusong@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인근 지역 메이플 시럽 축제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초기 정착민들이 뉴잉글랜드의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배경에는 메이플 시럽이 있다. 원주민들로부터 단풍나무 수액채취 방법을 배운 정착민들은 메이플 시럽으로 당분을 섭취하며 살아남았다고 한다. 뉴잉글랜드는 오늘날에도 미국 내에서 메이플 시럽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 2월 말부터 4월까지가 단풍나무 수액 채취 기간이다. 일교차가 10도정도 벌어지는 이때의 단풍나무 수액에 녹아 있는 당분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단풍나무 수액 채취 기간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메이플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스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메이플 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나뭇가지에서 막 나온 신선한 수액이 메이플 시럽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며 아침 식사로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팬케이크를 먹는 등 각종 이벤트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즐기며 얼마 남지 않은 겨울을 달콤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본 기사는 마미포핀스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네틱 커뮤니티 유기농 농장(Natick Community Organic Farm)
3월 2일

네틱 커뮤니티 유기농 농장에서는 현재의 메이플 시럽 기술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전수해준 전통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메이플 시럽이 뿌려진 팬케이크가 제공되니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글루텐 프리와 채식 식단이 마련되어 있다. 어른 12불, 어린이 6불의 참가비가 있다.

117 Eliot Street, Natick, MA
입스위치강 야생동물 보호구역(Ps-wich River Wildlife Sanctuary)

3월 2-17; 23일, 토요일과 일요일
단풍나무를 식별하는 법과 수액 수집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플 시럽 공장에서 끓은 수액이 최종 제품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맛볼 수 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액 수집 과정을 지켜본 후에는 핫간의 나무스토브에서 갓 조리한 핫도그와 수프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 먹을 수 있다. 참가비는 어른 11불, 어린이 9불이다.

87 Perkins Row, Topsfield, MA
올드 스톼브리지 빌리지(Old Sturbridge Village)

3월 2-24일, 토요일과 일요일
올드 스톼브리지 빌리지에서는 3월의 4주간 동안을 메이플 데이로 지정하여 뉴잉글랜드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다. 19세기 초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당시 메이플 시럽 수확한 방법을 설명하고 시럽으로 그 시절 만들어 먹었던 음식을 요리한다. 입장권 구매 외에 이벤트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없다.

1 Old Sturbridge Village Rd, Sturbridge, MA

매스 어더본 야생 동물 보호 구역(Mass Audubon Habitat)

3월 9일
온 가족이 함께 단풍나무를 식별하



올드 스톼브리지 빌리지(Old Sturbridge Village). 3월의 4주간 동안을 메이플 데이로 지정하여 뉴잉글랜드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다

고 수액을 모으고 메이플 시럽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실내에서 시작되어 바깥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두 번 진행된다. 8월에서 10월의 참가비가 있다.

아이들만을 위한 메이플 이벤트 또한 3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 10 Juniper Road, Belmont, MA 02478

드림린 팜(Drumlin Farm Wildlife Sanctuary)

3월 9-10일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이벤트로 시럽과 소시지, 감자요리가 나오는 팬케이크 아침 식사가 동반된다.

208 South Great Road, Lincoln, MA 01773

체스넛 힐 팜(Chestnut Hill Farm)

3월 9일
단풍나무를 식별하는 것과 수액 채

취 방법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각 참가자는 스스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 9월에서 15월의 참가비가 있으며 7세 미만은 무료이다.

5 Chestnut Hill, Southborough, MA 01772

서머빌 커뮤니티 그로잉 센터(Somerville Community Growing Center)

3월 16일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단풍나무 수액이 시럽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맛볼 수 있다. 이외에도 라이브 음악과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마련될 예정이다.

22 Vinal Ave, Somerville, MA

브레이크하트 레저베이션(Breakheart Reservation)

3월 16일
브레이크하트 레저베이션이 진행

하는 이벤트는 메이플 시럽 시식으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투어에서는 메이플 시럽의 역사와 단풍나무 식별 방법, 나무 쪼개기, 슈가 쉼 등이 포함된다. 5월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

177 Forest Street, Christopher P Dunne Visitor Center, Saugus, MA 01906

브룩우드 팜(Brookwood Farm)

3월 23-24일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메이플 시럽에는 나무 연기와 스팀이 만들어내는 자욱한 구름이 동반된다.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맛본 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 어른 10불, 3살 이상의 어린이 5불의 참가비가 있다.

Blue Hills Reservation, Milton, MA

sun@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 Live / 스포츠

\$34⁹⁹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Koreanschool.ne@gmail.com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 다운타운 재래시장 Hay Market

50센트의 비타민 충전, 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에 대하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송민정 기자 = 주말 오후 보스톤 다운타운의 유명한 재래 시장 Hay market에 다녀왔다. 아직 보스톤에 이사 온지 석 달 남짓, 싸게 야채와 과일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시장에 가 보니 상상 그 이상! 사람들의 리뷰는 늘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 Hay Market은 일단 무조건 가 봐야 한다. 활기 차게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은 한국의 가락농수산물 시장을 방불케 했다. 시장통 초입에서부터 일단 나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마음 이 설레기 시작, 본격적으로 가격과 신선도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내가 시장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오후 5시. 아침 6시에 시작해 7시에 문을 닫는 시장인 지라, 아침의 신선도를 따라 잡을 순 없겠지만, 가격은 정말 신선했다.

Hay market의 의미는 ‘짚단 시장’이란 뜻으로, 지푸라기에 신선한 농작물을 싸서 달구지에 싣고 모여 열리는 노천 시장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1820년부터 시작된 이 역사적인 시장은 한국의 3일장, 5일장처럼 금, 토

이렇게 이틀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린다. 위치적으로는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살던 노스 엔드 동네와 가깝고 항구와 인접한 지역이라, 물자유동이 많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한 이 마켓은 퀸시 마켓을 지나 노스 엔드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찾을 수 있다. 보스톤이란 도시의 반전 매력이라고나 할까? 세련되고 깔끔한 마켓들만 있을 것 같은.

이 도시에 이토록 서민적이고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시장이 아니! 한국에서도 시장 다니는 걸 즐겨했던 나는 한국의 재래 시장이 생각나 왠지 처음부터 편안하게 느껴졌다. 거기에 단돈 1불, 2불만 있어도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골라담을 수 있으니 이전 가격 비교라는 게 어떤 마트와도 안 될 정도로 경쟁력 있다. 일단 내가 발품을 팔아 이 가게 저 가게를 그 안에서도 비교한 후 사온 야채와 과일의 가격을 공개한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저렴했지만, 가게에 따라 어느 가게는 같은 크기의 딸기 한 팩을 1불에, 어떤 가게는 2팩을 1불에 파는 차이를 보였다. 매의 눈으로



보스톤 다운타운의 유명한 재래 시장 Hay market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장을 봐온 재료와 가격을 여기 공개한다.

(시장의 특성상 재료의 신선도와 질의 차이는 분명하다. 꼭 발품을 팔아야 좋은 재료를 살 수 있다.)

딸기 두 팩 1불(한 팩당 보통 마트에서 4불~5불 정도 하는 크기), 레몬 1개 1불,

미니 수박 2개 2불, 알감자 한 봉지 1불, 할라피뇨 고추 큰 거 11개 1불, 아보카도 2개 1불,

커다란 무 6개 6불, 생강 큰 걸로 7개 1불, 점보 사이즈 가지 개당 2불, 마늘 두 팩 1불,

1달러를 외치는 상인들의 생활력 넘

치는 목소리와 그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알뜰한 소비자들의 눈빛, 모처럼 1달러가 주는 큰 기쁨... 그야말로 활기차고 신선한 공간에서 나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푸짐히 장을 보고 조금은 허기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옆 ‘리틀 이태리’라 불리는 노스 엔드에 들러 이태리 디저트와 커피 한 잔을 즐기고 돌아가도 될 테니까... 주차가 걱정이라면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 옆 Public market 빌딩에서 아무거나 1불 이상 소비를 하기만 하면 3층 주차 공간에서 시간당 1불의 저렴한 주차비로 차를 주차할 수 있

다.

또한 대중 교통으로는 Green line과 Orange line의 Hay market에서 하차하면 된다. 신선함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Hay market에서 사온 딸기를 그 날 저녁 바로 먹어 보았다. 어느 마트와 똑같이 맛있고 상큼했다. 아아~50센트의 행복한 비타민 충전이였다. 마음도, 몸도 비타민 충전하는 소확행을 Hay market에서 누리보시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은 역시 언제나 우리 삶 가까운 곳에 있다.

100 Hanover st, Boston, MA,
www.haymarketboston.org
jinjusong@bostonkorea.com



Public market 빌딩에서 아무거나 1불 이상 소비를 하기만 하면 3층 주차 공간에서 저렴한 주차비로 차를 주차할 수 있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한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제40대 보스톤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보스톤 한인사회를 이끌어 갈 제 40대 한인회장 후보를 공모합니다.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각 한인 및 미국 단체와 원활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유능하신 분들의 등록을 바랍니다.

1. 후보자 등록 기간

2019년 2월 22일 부터 3월 8일 까지

2. 등록 방법

- 선관위원장이나 총무에게 간단한 이력서와 함께 서면으로 한인회장 후보가 될 의사를 보냄.
후보등록은 공탁금과 함께 2019년 3월 8일 금요일 11시 59분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선거위원장과 간사에게 접수된 후보만 심사대상으로 한다.
한선우(선관위위원장) marathoncomputer@gmail.com
이현경(선관위간사) sjks.principal@gmail.com

〈공탁금 접수처〉

윤철호(한미노인회 회장)선거관리위원
Chul Yoon
96Taft Ave. Methuen MA.01844

-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비용 공탁금은 후보자당 \$5,000으로 하며 Bank Check 으로 제출한다.
제출된 공탁금은 반환 되지 않는다. 선거 후 남은 공탁금은 본 한인회 소속으로 이월 한다.
- 제40대 한인회회장 선거 방식은 직접선거로 진행한다.
- 회장 임기 2019년 4월1일 부터 2021년 3월31일

3. 선출 방법

단수후보일 경우 선관위에서 결정 후 공고 하지만
다수후보일 경우 2019년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실시하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제40대 한인회장을 선출한다.

선거관리 위원

보스톤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한선우(38대 한인회장)
김병국(부위원장, 한미예술협회), 이현경(간사,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윤미자(민주평통), 윤철호(노인회),
이경해(시민협회), 장수인(필하모니아 보스톤), 채명희(다문화선교)



어린 학생 풋볼 태클 금지 법안 추진

뇌진탕 등 심각한 뇌 손상 우려 7학년 이하 풋볼에서 태클 금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풋볼은 뇌진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년 많은 프로, 혹은 대학 풋볼 선수들이 뇌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 때문에 풋볼 세계에서 은퇴를 하곤 한다.

뇌진탕을 포함해, 풋볼 경기가 어린 선수들의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풋볼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국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풋볼 선수는 지난 10년 동안 6.6%가 줄어들었고, 매사추세츠 주의 고등학교 풋볼 선수는 13% 가까이 감소하였다.

여전히 풋볼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다. 미국 전체에서 고등학교 풋볼 선수는 100만 명 이상이다. 육상과 농구 선수를 합친 숫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학생들이 풋볼을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는 330개 학교가 풋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수비수였던 닉 부니콘티는 "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

하기 전까지는 풋볼을 시키지 말라고 간청한다"며 "나는 9살에 풋볼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태클을 하는 실수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만성 뇌질환이 내 인생을 앓아갔다. 어린 시절의 풋볼 태클은 아무런 보상도 없는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는 청소년 풋볼에서 태클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폴 슈미트와 브래들리 존스 하원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7학년 이하 학년에서 풋볼 태클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천 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해서 어길 경우 벌금은 최대 5천 달러까지 올라가고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슈미트 의원은 "축구, 라크로스, 하키 등의 운동은 머리가 부딪치는 행동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풋볼은 그렇지 않다"며 "이 모든 것은 어린 학생의 건강에 관한 것이다. 머리를 계속해서 부딪치고, 특히 어린 나이에 이런 행동을 시작할 때 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수 차례 보고 되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jsi@bostonkorea.com



어린 학생들이 풋볼을 할 때 태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거짓 정보로 정부 혜택 여성 감옥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 10만 달러 이상의 정부 혜택을 받은 매사추세츠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올해 39세인 스테파니 디피에로는 이번 주부터 1년 1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메드포드에 거주하는 디피에로는 위조 문서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디피에로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 73,000달러, 메디케어 보조금 8,000달러, 매스헬스 지원금 8,600달러를 받았으며, 푸드 스탬프로 사용한 금액은 18,000달러였다.

디피에로는 가사 도우미로 일을 했지만 자신의 수입이 전혀 없다고 주 복지부에 보고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왔다. 디피에로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3년 동안 보호감찰 처분을 받게 되고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모든 돈을 정부에 갚아야 한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MA 법무장관 마사지 업소 규제 강화 요청

패츠 구단주 성매매 혐의 기소 여파 유사 마사지 업소도 라이선스 받아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부 장관이 마사지 업소에 대한 허가과 규제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인 로버트 크래프트가 플로리다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힐리 장관은 크래프트에 대한 기소 내용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충격적”이라며 법 집행 기관이 사건을 잘 조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플로리다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백 명의 남성이 기소되었다. 크래프트도 그 중 한 명이며, 크래프트는 2건의 성매

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크래프트는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크래프트는 플로리다 주피터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곳은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던 업소였으며 현재는 문을 닫았다.

크래프트는 지난 1월 19일과 20일 두 차례 방문했으며, 크래프트가 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비디오에 찍혔다. 크래프트는 마사지 업소를 나선 후 AFC 챔피언십 경기가 열리는 캔자스 시티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미 주 정부에

서 라이선스를 받은 마사지 업소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힐리 법무장관은 마사지업과 유사한 형태의 바디워크 업소는 교묘하게 범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디워크 업소는 부항 등을 통해 통증 감소와 혈액 순환을 돕고, 마사지가 아닌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바디워크 업소는 마사지 업소가 받아야 하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다.

힐리 법무 장관은 마사지 업소에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위원회에 인신매매 조사 경력이 있는 조사관을 추가하고, 마사지 업소와 바디워크 업소에 대해 똑같은 규제와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법안 제정을 의회에 요구했다.

jsi@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인 로버트 크래프트가 플로리다에서 2건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팜머스 소재 멕시코 식당에서 브라질 이민자인 산토스가 터너의 모자를 눌러 내리고 있다. 브라질인 터너의 페이스북 캡처

멕시코 바에서 마가 모자 쳐 떨어뜨린 여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멕시코 술집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이하 MAGA)" 모자를 쓴 한 백인 남성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린 브라질 여성이 추방위기에 처하게 됐다.

연방 이민단속국은 브라질 이민자인 로세인 산토스(41)씨를 불법이민자로 파악했으며 26일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

산토스씨는 보스톤 남쪽 케이프코드 팜머스(Falmouth) 소재 한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브라이언 터너(23)씨가 MAGA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고 "이 모자를 쓰고 멕시코 레스토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터너씨는 그녀가 지나가면서 모자를 쳐 떨어뜨리는 영상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이를 포스트

했다. 경찰이 이 여성을 호위해서 나가는 순간에도 다시 이 남성의 머리를 쳤으며 술에 취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멕시코 바의 바텐더는 이 남성이 결코 이 여성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 포스팅에 일부 독자들은 멕시코 식당에 MAGA 모자를 쓰고 간 것 자체가 이 여성을 자극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토스씨는 폭행 및 무질서한 행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바로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이민단속국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산토스씨가 브라질 국적이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민단속국은 26일 산토스씨를 체포했으며 이민재판소에서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턴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턴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코언 폭로에 특검보고서까지 트럼프 미국내 악재 첩첩산중

"코언 증언은 트럼프 탄핵의 첫 비공식 청문회"
북미회담도 변수...특검 보고서, 카운터 펀치될까?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이 "지금 이 기회라"고 생각한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자리를 비운 시기에 회담의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마치 당장 탄핵이라도 들고 나설 듯하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첫 공개 증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코언은 "오늘 나는 트럼프에 대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언은 △ 트럼프 대통령은 고문인 로저 스톤으로부터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가 '이메일 스캔들'을 미리 보고 받았고 △ 2016년 뉴욕 트럼프 빌딩에서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러시아 측 인사가 비밀 회동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를 건립하는 계획과 관련해 직접 협상을 지시했으며 △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hush money)을 줬다고 밝혔다.

코언은 여성들에게 돈을 준 뒤 트럼프 대통령 장남에게 받은 것이라며 수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불법 행위들도 알고 있지만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언의 이러한 폭로에 미국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보다 코언의 증언을 생중계하면서 미국에서는 반(反)트럼프 분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

NBC 방송의 '미 더 프레스'의 척 토드는 "코언의 증언은 트럼프 탄핵 과정에 있어 '첫 비공식 청문회'라고 까지 말했다.

코언의 증언으로도 비틀거릴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도 대기하고 있다. 특검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운터펀치'가 될 수도 있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무러 특검은 이번 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수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법무장관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6개 상임위원회는 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체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27일 워싱턴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공개 증언을 하고 있다

고 압박했다. 그러나 완전하게 내용이 다 공개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 밖에도 내달 8일 예정된 폴 매너포트 트럼프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의 선고 공판도 트럼프 대통령을 연달아 흔들 수 있다.

만약 특검의 수사보고서에서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이나 사법 방해 의혹 등이 거론된다면, 북미정상회담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성과를 갖고 돌아온다고 해도 탄핵 가능성에 또다시 불이 지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액셀로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청문회를 덮기 위해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 아닌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북한에 굴복한다면, 이는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yellowapollo@news1.kr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미국도 골머리 이유는?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틀간 공습을 주고받는 등 분쟁이 격화되자 미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미국 CNBC가 27일 보도했다.

인도 공군이 26일 파키스탄을 공습하자 27일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인도 공군기 2대를 격추하고 조종사 1명을 생포했다.

◇ 핵보유 국가가 공습 주고받은 것은 사상처음 : 로이터통신은 핵무기 보유국끼리 이틀간 서로 공습을 주고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악화되자 미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에 미군을 파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반테러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인과분쟁이 확대되면 아프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미국 중국 견제 위해 인도편 들어 :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편에 서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아프간 주둔 미군에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아프간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군은 현재 파키스탄 북쪽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 미국-파키스탄-아프간 복잡

하게 얽혀 있어 :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편을 들고 있다. 지난 1989년 소련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뒤 아프간 군벌간 내전이 이어졌고, 파키스탄은 이때 집권한 탈레반을 지원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01년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축출됐을 때 그 잔당이 파키스탄 북서부에 은신하는 것도 묵인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지금도 탈레반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아프간 내 탈레반은 6만 명, 파키스탄 내 탈레반은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과 분쟁이 확대되면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조인 것이다.

◇ 베트남 북미정상회담보다 더 큰 문제 : 따라서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현재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정상회담보다 오히려 인과분쟁이 미국 외교에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의 선임 고문인 맨프리트 싱은 "현재 미국 외교팀은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지만 진정한 위기는 인과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 파키스탄 양국은 모두 핵보유국이고, 양국의 분쟁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inopark@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애플, 자율주행차 사업 표류하나 대규모 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4명 · 하드웨어 40명 등 정리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애플이 27일(현지시간) 자율주행차 사업 일명 '타이탄 프로젝트' 직원 19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4월16일자로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본사 인근에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8개 시설에서 직원들을 해고할 계획이라며 관련 서류를 주(州) 고용 당국에 제출했다.

애플 대변인은 해당 인력 감축이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해고 대상자에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최소 24명과 하드웨어

엔지니어 40명이 포함됐다. 제품 디자인 엔지니어 3명과 인체공학 엔지니어 1명, 그리고 기계조립공장 감독관 1명도 해고된다.

애플은 자율주행차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체 차량을 만드는지, 혹은 센서나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중점을 둔 분야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에 공개된 감원 계획에 제품 디자인이나 인체공학 엔지니어가 있는 점을 주목해 "소비자를 위한 물리적 제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의 이번 인원 감축은 지난해



8월 '천정'인 애플로 복귀, 타이탄 프로젝트를 맡은 더그 필드 전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개편이다.

한 법정 서류에 따르면 애플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알아야 할 것만 아는'(need-to-know)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애플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 14만명 중 5000명이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이 중 약 1200명만이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된 핵심 인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sy@news1.kr

런정페이, 화웨이 미모토롤라에 매각 추진했었다

매매 성사됐다면 세계 이동통신 역사 바뀌었을 것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만약 당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세계 이동통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2003년 12월 중국의 휴양지인 하이난성에서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과 모토롤라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마이크 자피로프스키, 모토롤라 중국 사장인 래리 청이 비밀회동을 가졌다.

당시 49세였던 런정페이 회장은 화웨이를 팔려고 이들을 만났었다. 아직 브랜드 힘이 약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주 후 화웨이를 75억 달러에 모토롤라에 판다는 가계약서가 작성됐다.

그러나 이 가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모토롤라 이사회가 인수가 너무 비싸다며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모토롤라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에드 잔더는 "이름 없는 중국 기업을 사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당시 두 회사 모두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 각국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양 회사는 2000년부터 협력을 해 왔다.

서로 협력했던 이들은 2003년 매매계약이 파기된 이후 라이벌로 돌변했다. 특히 모토롤라는 2010년 화웨이를 지재권 침해로

고소했다. 이후 이들은 각자의 길을 갔다.

이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이동 장비 공급업체가 됐다. 이에 비해 한때 이동통신의 상징이었던 모토롤라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토롤라는 휴대폰 제조부분을 구글에게 넘겼고, 현재 솔루션 부분만 운영하고 있다. 미미한 중소 업체로 전락한 셈이다.

만약 당시 모토롤라가 화웨이를 인수했다면 세계 이동통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양즈중은 "화웨이는 상장도 하지 않은 개인회사"라며 "화웨이가 독보적인 이동장비 업체로 도약하자 중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런 회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한스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런 회장은 창업 초기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가족이 화웨이에 투자를 원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은행 대출로 화웨이를 꾸렸다"고 소개했다.

sinopark@news1.kr

피아트, 미 공장에 5조원 통큰 투자 눈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글로벌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FCA)가 26일 미국에 대한 45억달러의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에 따르면, FCA는 앞으로 3년간 45억달러를 투자해 기존 공장 5곳의 개선하고 디트로이트에 새로운 공장 1곳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6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FCA는 미시간 주에 위치한 기존 공장들은 이번 투자로 인기 차종인 지프와 램트럭 등의 생산이 향상될

것이고, 신규 차종과 전기 자동차도 생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CA의 이러한 계획은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인력과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 눈길을 끈다. FCA의 마이크 맨리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정상) 궤도에 올라 있음을 확인한다"며 투자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맨리는 이어 "이번 투자 계획은 우리의 핵심 브랜드인 지프에 맞춘 것으로, 개선된 공장에서는 지프의 대형 차종 중 세 대가 생산될 것"이

라고 말했다.

FCA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소형 승용차와 세단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이동하면서 지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FCA는 16억달러를 투입해 맥 아베뉴 엔진 공장을 생산 공장으로 전환해 지프의 차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3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yellowapollo@news1.kr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상인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TBS
 HDX MDC SBS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55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	---	--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TBS KBS MBC SBS tvN O'live OCN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추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황교안, 입당 44일만에 당대표...민주당출신 조경태 최고위원 1위

황교안, 50%지지 속 2위 오세훈과 격차 벌리며 당선
황교안 "내년 총선 압승, 2022년 정권 교체하겠다"

(고양·서울=뉴스1) 김정률, 이형진, 이균진 기자 = 내년 총선을 이끌 자유한국당의 신임 지도부가 27일 출범했다. 신임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후보는 불과 입당 44일만에 당 대표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최고위원 최다 득표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조경태 의원이 차지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6만8713표(50.0%)를 얻어, 각각 4만2653표(31.1%)와 2만5924표(18.9%)를 득표한 오세훈·김진태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한국당 신임 대표는 일반·책임당원·대의원 등 선거인단 대상 모바일·현장투표(7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됐다.

선거인단 투표에는 총 37만8067명 중 9만6103명이 참여해 25.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황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며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안타깝게 낙선하신 분도 우리 당의 소중한 보배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다. 한국당은 원팀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총 8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은 1인 2표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8

만 %44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0.2%를 기록했다.

최다 득표자는 조경태 최고위원으로 6만5563표(24.2%)를 기록했다. 이어 정미경(4만6282표·17.1%), 김순례(3만4484표·12.7%), 김광림(3만3794·12.5%) 최고위원이 뒤를 이었다.

윤영석 후보(3만1106표·11.5%), 윤재옥 후보(3만95표·11.1%), 조대원 후보(1만5434표·5.7%) 김정희(1만4156표·5.2%)는 고배를 마셨다.

청년 최고위원은 9만5473명이 투표해 2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 후보는 전체 4명의 후보 가운데 40.4%(5만5086표)를 기록해 당선됐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황 대표와 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께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최고위원은 수락 연설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각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

께 사랑받은 지도부를 만들어 자유대한민국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2021년 2월까지 대표와 최고위원을 맡으며 내년 4월 21대 총선과 2021년 대선 준비를 책임지게 된다.

jrkim@news1.kr

사실상 집단휴업...한유총 내주부터 무기한 개학연기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사립유치원 새 학기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3318개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일을 무기한 미루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방침에 더 강경한 대응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다음 달 공포를 앞둔 유아교육법 시행령 보류, 향후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관련 협의의 선언을 할 경우 무기한 개학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

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이번 무기한 개학연기 선언의 핵심 이유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과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을 향한 사망

선고"라며 반발해왔다.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전체의 6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유총 관계자는 전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학부모들한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과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조건도 내놔다. 이덕선 이사장은 "다음달 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보 그리고 기본적인 제도의

들을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협의하는 부분은 선언이 돼도 개학연기를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과인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에듀과인 도입 반대 논리였던 시설 사용료 인정은 거듭 요구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개인 재산인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kjh7@news1.kr

엘프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연말 연시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크림: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5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쌈 매운탕도 강추!

확장
오픈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킵 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R. 1st - MAR. 7th, 2019

BIBIM NOODLES (SPICY COLD NOODLES)

SWEET, TANGY, SPICY COLD NOODLES. THE CLASSIC KOREAN NOODLE DISH AT HOME!

매콤, 새콤, 달콤한 양념을 차가운 국수에 얹어 다양한 야채와 함께 쓱쓱 비벼 먹는 한국식 비빔국수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f](#) [p](#) [i](#) Follow us @hmartofficial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me@hmart.com](#)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6.99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Seedless Orri Mandarin
자파 만다린
\$1.79



Gobo 우엉
\$1.99



Lotus Root 연근
\$1.99



White Cabbage 화이트 케비치
\$1.29



Ginger 생강
\$1.49



Native Chestnut 도종밤
\$3.99



NATURE'S Tofu 자연당은 두부
All Varieties - 14oz / pkg
\$0.99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스테이크 **\$6.99**

Fresh Beef Flank Steak 알차다 양지(육개장) **\$6.99**

Boneless Pork Loin Chop 등심 족발 **\$4.99**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 스틱 **\$1.49**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배베크용 탕통 삼겹살 **\$4.99**

Mannated Slic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고기 **\$6.99**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2.5 lb. pkg Premium Dried Croaker 통통배 명품 굴비 **\$16.99**

TONGTONGBAY 16oz. pkg Cooked Mussel Meat 통통배 자숙 홍합살 **\$3.99**

TONGTONGBAY 2L/1.5 lb.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 절반 꽃게 **\$7.99**

Headless White Shrimp 26-30 머리없는 흰새우 **\$6.99**

TONGTONGBAY 1 lb. pkg Frozen Squid Flower Cut 통통배 송달굴 오징어 **\$4.99**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6.99**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미아일 **\$9.99**

CJ Cooked White Rice CJ 찰반 밥스 **\$10.99**

HANDREUM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복숭이 **\$14.99**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yer 광천 녹차김 **\$9.99**

KYONG GI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경기미 **\$26.99**

PULMUONE Vietnamese Pho 풀무원 베트남 쌀국수 **\$4.99**

SAMHAK Rice Cake Sliced 삼학 떡국떡 **\$4.99**

HAND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고기 양념 **\$3.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14.99**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든반찬을 드셔보세요

DUNWON NONGHYUD Honey Citron Tea 두원농업 꿀향 레몬차 **\$5.99**

HAIU REUM GOMPYO Wheat Flour 해오름 곰보가루 **\$3.99**

CHUNGJUNGMEON Luncheon Meat 청정원 연천미트 **\$2.99**

HORMEL FOODS Spam 스팸 **2\$5**

NISSIN Fish Sausage 니시 소세지 **2\$7**

BIN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5.99**

MYMO Mochi Ice Cream 메이모 모치 아이스크림 **\$3.99**

SURUSONG Frypan 수라상 다들 후라이팬 **\$12.99**

KITCHEN ART Sweet Potato Pot Grill 키친아트 고구마 찜구리 **\$6.99**

KOTO 3-Tier Stainless Steel Steamer 코토 스테인레스 3단 밥솥 **\$29.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www.hmart.com](#)

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상승, 동행·선행지수 8개월 연속 ↓

통계청 '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 0.8% ↑
소비·투자도 전월 대비 개선...동행·선행지수는 하락세 여전

(세종=뉴스1) 이훈철, 한재준 기자 = 올해 1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만이다. 부진했던 설비투자과 건설기성이 지난해 12월보다 증가한 데다 광공업·서비스업 생산도 개선된 영향이 컸다.

다만 현재와 미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대비 0.8%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도 각각 전월 대비 0.2%, 2.2% 증가했다.

생산 지표는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로도 0.6%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을 보면 자동차와 1차 금속 생산이 전월 대비 3.5% 늘어났다. 신차 효과로 완성차 수출 및 자동차 부품 국내 수요가 늘어난 데다 스테인리스 강관 수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로 분석된다.

반면 전자부품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LCD 부문 생산이 악화하면서 전월 대비 마이너스(-) 5.4%로 집계됐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7.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생산에서는 숙박·음식점(-1.0%)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도소매와 정보통신이 전월 대비 1.8%, 2.5%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0.9%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이른 설 연휴 영향으로 도소매 생산 지표가 개선됐고 운수창고업과 정보통신업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서는 설비투자가 컴퓨터 사무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 개선에 힘입어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건설기성도 건축 공사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화력발전 등 대규모 수주가 있었던 지난해 1월 기저효

과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3%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소비역시 설 연휴 영향으로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지표가 개선됐다.

올해 첫 달부터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반짝 동반 상승했지만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p) 하락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향후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4p 하락하며 8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흐름을 같이 보면 동반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인데 이같이 오랜 기간 두 지표가 동시에 부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월 선행지수 하락에는 구인자수 대비 구직자 수를 나타내는 구



인구직비율이 악화된 영향이 컸다. 1월 구인구직비율은 전월 대비 -4.1%p로 2014년 7월(-4.1%p) 이후 5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폭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으로 인한 고령층 구직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월 60세 이상 구직자는 2015~2018년 평균 대비 2만6959명 늘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1월 서비스업, 광공업 등 생산이 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기성이 모두 증가하면서 3개월만에 모든 지표가 동반 상승했다"며 "다만 지난해 말 산업활동 지표가 부진했던 영향이 남아있어서 동행·선행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추세가 계속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최저임금 상하한선 먼저 정한다... '정권 입김' 논란 차단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최임위 이원화
기업 지불능력 제외...고용 영향·경제 상황으로 보완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경제여건을 감안해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는 정부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노사 대립으로 인한 위원회의 갈등, 정부와 정권의 입김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이 유지됐다.

최저임금 상하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선정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씩 6명을 배제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구간설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며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 해당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토론회에서 결정위 위원으로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공유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 초안에서는 국회가 3명, 정부가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추천의 다양성을 위해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한다. 다만 고용부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기업 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경제 상



24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

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개편안 논의 초안에 결정기준으로 담겼던 '고용수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됐다.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편안 논의 초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고용·경제상황'에서는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포함된 바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된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며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한 뒤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francis@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군

617.543.5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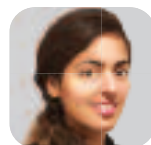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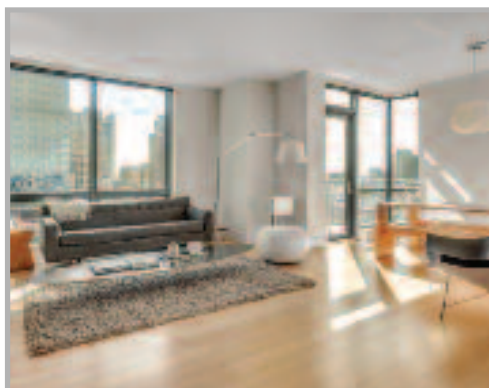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럭셔리콘도매매

보스톤다운타운보스톤커먼 근처
2 Beds & 2 Baths 1378 Sq.Ft
Valet 주차, 루프탑, 수영장

Asking **\$1,650,000**



● 네일샵매매

Price
Reduced

보스톤북쪽, 3760 Sq. Ft
18 Chairs & 20 Nail tables
최고급시설

Asking **\$47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선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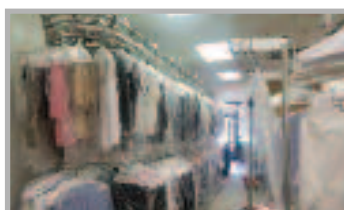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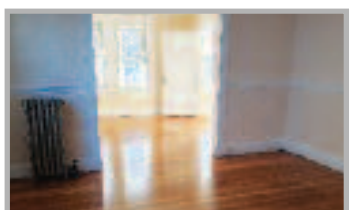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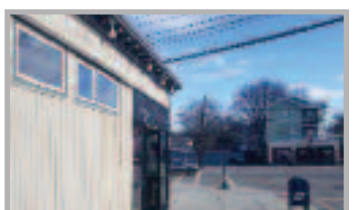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Quan Xiao
617.504.2125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Rental
35 Lawrence Lane
Lexington, MA
Asking Price: \$3,150/mo
Listing Agent: Lisa Le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Price: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171 Littleton County Road
Harvard, MA
Asking Price: \$2,750,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Price: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Tracy Qin Zhao
401.369.2227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Carter Road
Burlington, MA
Asking Price: \$799,000
Listing Agent: NJ Kim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Commercial Lease
17 Pelham Street
Newton, MA
Lease Price: \$4,500
Listing Agent: Janice Lee



Just Listed: Multi-Family
23 Everett Street
Boston, MA
Asking Price: \$8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Condominium
10 Charlesgate E - Unit 304
Boston, Back Bay, MA
Asking Price: \$1,1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求 (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求)하든지 내가 시행(施行)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求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 요한복음 14:13, 14.

청와대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독회담에 들어 갈 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을 내비쳤었다.

돌연 회담 상황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잠깐 사이에 어떻게...”라고 놀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회담결과에 따라 남북간에 대화의 속도·깊이가 달라지겠지만, 잠시 쉬고 있었던 남북한 대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회담 종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이륙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과 중재가능성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깊어 졌다고 생각한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키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남북대화 본격화’를 거론한 게 오후 2시27분이었는데 그로부터 26분만인 오후 2시53분 “트럼프·김정은 간 오찬 및 서명식이 불투명하다”는 속보가 떴고 결국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홀로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서명식을 TV생중계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주요참모들과 함께 볼 예정이었지만 취소된 것.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두 정상)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북간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아쉬움이 역력했다.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김민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은 오후 4시 당대표실에 모여 미·북정상의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TV로 시청할 계획이었다.

이 장면은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협상 결렬 소식에 계획을 급히 취소했다. 민주평화당도 TV시청과 언론 공개 일정을 접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상결렬 소식에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양쪽이 다

양한 논의를 했고, 일부 타결을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추후에 회담의 지속성을 논의해 보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특별위원회-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결렬에 안타깝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장밋빛 환상만 말한 것”이라며 “말로만 그치는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를 이뤄내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행동이 현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은 “70년간 쌓여온 반목의 역사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미회담의 결렬을 빌미삼아 평화정책의 발목을 잡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북미 대화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설 때”라고.

求: 索也색야, 乞也걸야 = 구할 구. 이

글자는 ①水: 물 수자 위에 ②十: 열 십 또는 十' 십자가' 위에 丶(점: 영(靈) 영혼을 표시하는 '點: 점' 이 붙어 있다.

아시다시피 “水: 물 수”는 “地之血氣지혈기: 땅에서 솟아나는 핏기운.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신분이 물(水)로 표신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요한복음 4:14.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永生水)에 영원한 사랑을 표시하는 “十” 십자가가 얹힌 글자가 求(구): 索也乞也색야걸야 - 구할 구.

따라서 求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永生水) 곧 죽은 후에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생활하는 가족”으로 변화된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언약(言約).

이 求자의 축복이 ①마태복음 6:8 ②요한복음 14:13 ③고린도 전서 10:33 ④요한 1서 5:14 등 모두 4구절이 “求”를 증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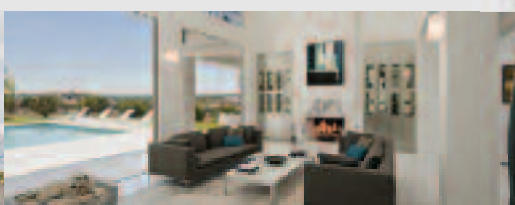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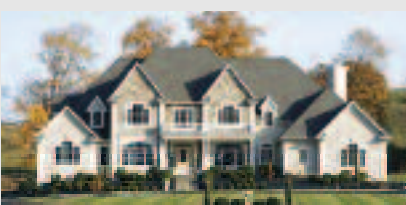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Jay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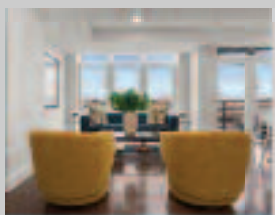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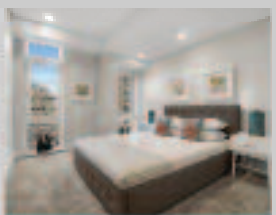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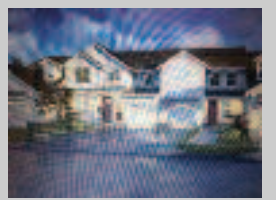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보스턴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

ASKING \$99,000



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퍼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

ASKING \$480,000



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

ASKING \$160,000



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

ASKING \$170,000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NH 대형 물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

ASKING \$150,000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

ASKING \$170,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패키지 store

ASKING \$200,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북 제시안은 '영변+α' 아닌 '영변', 김정은 결심 부족했나

트럼프 "영변+α 필요했다. 우라늄 농축 시설 알고 있다"
'대북 제재 해제' 요구로 맞대응한 北, 향후 협상 여지 남겨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α (알파)는 없었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일단 '결렬'로 귀결됐다. 미국 측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추가 핵시설 폐쇄 조치라는 '영변+α'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합의문 서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를 간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에 플러스 알파를 원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영변 폐쇄보다) 더 필요했다"라고 즉답했다.

이어 "나오지 않은 것(핵 관련 시설)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도 있다"라며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과 같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수준(레벨)에서 (협상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당초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 핵 관련 시설의 공개와 폐쇄를 원치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도 "영변 핵 시설 외의

미사일, 핵 탄두, 무기 체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핵 관련 목록의 작성과 신고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며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이유다"라고 협상 결렬의 이유를 명확히 했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는 이미 북한이 의지를 밝혔던 부분이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입장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쇄 안을 가지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기에는 '새로운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셈이다.

미국 내부 정치 문제로 인해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가지고 자국 내 여론을 '컨트롤'하기에는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북 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과도한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렬' 결심을 굳히게 한 도화선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실무팀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부족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외부의 시선과 달리 비핵화의 결정적 조치일 수는 있

다.

일부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능력이 과대평가돼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며 영변 시설의 폐쇄만으로도 북한의 핵능력은 무력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라늄 농축 관련 추가 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같은 분석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인다.

"북한의 핵시설은 분명히 영변 외에 더 있다"라는 팩트를 던짐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하고 싶다는 의도인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 측의 성의 부족에 대한 실망감을 회담 결렬이라는 방식으로 표했을 수도 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대로 동창리 미사일 기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등 핵탄두 탑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능력의 폐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미국 측에 큰 실망감을 안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협상 방식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모든 여론이 '영변+α'에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든 척하듯 협상에 임한 의도가 무엇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 혹은 면제가 아닌 협상의 최종 단계 합의 사항으로 여겨진 '해제'를 요구하면 서도 'α'를 제시하지 않은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분위기는 좋고 우호적이었다"라며 "우리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악수를 나누고 따뜻한 분위기로 헤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150을 요구해 100을 받아낸다'라는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

지가 별로 없는 만큼, 북한 역시 영변을 내주는 대신 대북 제재와 관련해 '최대한 받아내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제시한 대북 제재 완화 관련 제안에 북한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2차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대화 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화 모멘텀의 일시적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의 변동과 북한의 경제 건설의 시간표 등이 대화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seojiba3@news1.kr

북 리용호, "제재 일부 해제 요구했다...입장 변화 없을 것"

리용호 외무상, 북미회담 결렬에 심야 기자회견
"영변 핵 폐기, 현 신뢰수준서 가능한 최대 조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 0시쯤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리 외무상은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제기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2월28일)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회담이 결렬됐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리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 지 이 자리에선 말하기 힘들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리 외무상의 기자회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최섉희 외무성 부상도 배석했다.

다음은 리 외무상의 기자회견 전문.

제2차 조미 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알려드리겠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있는 제1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공동 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제기했다.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지역의 플루토늄과 우라

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이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본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 이 정도의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한다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3월1일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 지 이 자리에선 말하기 힘들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다.

완전한 비핵화로의 노정(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량의 방안이 반드시 실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이다. 감사하다.

dhk@news1.k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신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고장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기독교연합회	978-407-7554
국재한국기독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94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자랑인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임업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산우회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운교회	617-49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9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17-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88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뱀열교회	978-274-2369
엠헤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헤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솔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성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콘시영성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 평판정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원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팅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향건축	617-688-6833
한샘(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수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트리트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드미움)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아프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름치	978-263-4592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시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47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Choosing a quality, affordable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Eastern Nazarene College is nationally recognized and among the top colleges and universities locally, regionally and nationally.



Serving the Quincy community since 1919



Associate's | Bachelor's | Master's
Traditional Undergraduate
Adult and Graduate Studies

*Our honors programs have over 90% acceptance rate
into medical and law schools.*

#1
Money Magazine
recognized ENC as
the top private college
in New England and
#24 in the nation
for affordability.



EASTERN
NAZARENE COLLEGE

23 East Elm Avenue
Quincy, MA 02170-2999

617-745-3000 • www.enc.edu



QARI
SINCE 2001



ENC is expanding higher education pathways
to Asian and immigrant students in
partnership with Quincy Asian Resources, Inc.
To learn more visit www.qarima.org/enc
or call 857-334-9311.

"아저씨 보다 진보" 이선균x이정범 감독 뭉친 '악질경찰'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이선균이 역대급 '악질경찰'로 변신했다. 영화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과 만나 '악질경찰'로 변신,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악질경찰'은 뒷돈은 챙기고 바리는 눈감는 쓰레기 같은 악질경찰이 폭발 사건 용의자로 몰리고 거대 기업의 음모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범죄 드라마다. '아저씨' '우는 남자' 이정범 감독의 신작이다.

먼저 이선균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직업만 경찰이고 쓰레기 양아치에 가깝다"고 극중 배역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뒷돈 챙기고 범죄도 사주하고 비리도 눈감아주는 인물"이라며 "돈 버는 것에 눈이 먼, 질이 아주 안 좋은 경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껏 해왔던 역할 보다 진한 캐릭터"라며 "그 전에도 나쁜 경찰을 한 적이 있지만 가장 질이 나쁜 정도가 심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또 이선균은 '악질경찰' 선택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도 경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엔 범죄자에 가까운 인물 같다. '공공의 적' 강철중이나 '끝까지 간다' 고건수보다 무난한 경찰이고 거의 쓰레기 같은 범죄자에 가깝다"면서 "장르적으로 쌓여가는 사건도

흥미로웠고 캐릭터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진한 캐릭터라 해보고 싶었다. 이후 각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좋았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이정범 감독은 이선균 전소니 박해준 캐스팅 이유도 전했다. 그는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인물들의 심리가 많이 변하는 순간이 있었다. 풍성하게 연기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다"며 "이선균씨는 그간 많이 노출됐던 모습 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면들이 있었다. 그런 면들을 심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선균 배우도 시나리오를 읽고 좋아했었다"고 밝히 눈길을 끌었다.

또 "전소니는 단편영화에서 처음 맡았다. 마스크가 예뻐데 쉽지 않은, 얼음공주 같은 느낌도 있었다. 엄미와 싸우고 집나온 소녀 같은 느낌도 있었다.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하고 만났는데 그 장점에 더한 감수성이 있었다"고 말했고, "박해준은 조각상처럼 잘생겼다. 그 안에 야수성과 폭력성이 있다. 이 사람은 놀랐다가 개발하는 느낌으로 터뜨리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선균과 박해준의 액션도 관전 포인트다. 이선균은 "박해준과 액션을 찍는 장면이 있었다. 컷을 나눠 찍기로



했는데 한 장면으로 마치 격투기 하듯 계속 촬영을 했다. 박해준이 초크 기술을 썼는데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액션을 찍었다"며 "정말 기절 직전까지 갔는데 다들 연기인줄 알더라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박해준과 학교도 같이 다녀서 많이 봤다"며 "동기 중에 가장 사이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친구였는데 연기하면서 깜짝 놀랐다"며 "물 만난 것 같다. 어떻게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지 신기했었다"고 칭찬해 기대감을 높였다.

'악질경찰'은 이정범 감독의 전작 '아저씨'와 '우는 남자' 보다 더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영화가 될 예정이다. 이 감독은 "'아저씨' '우는 남자' 엔딩이 다 똑같다. 남자가 뭔가를 깨닫고 우는 장면에서 끝난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남자에 매력 느낀다. 조금이라도 내적 성장을 이루며 끝나는 영

화를 좋아한다"면서 "이번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행동을 한다. 남자가 울면서 자괴감 빠져서 끝나는 영화가 아니다. 행동을 한다는 게 중요했다. 머물러 있지 않고 한발 더 나갔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악질경찰'은 오는 3월21일 개봉한다.
aluemchang@news1.kr

3월 3일 - 3월 9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문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철저한 확인이 필요 ●운수: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전: 원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합니다. 더 나은 조건이나 가격대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머리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포기해도 마음으로는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5, 8일 길일, 7, 9일 주의.	소띠 정확하게 말해야 ●운수: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끌어들이는 사람이 도리어 일을 더디게 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과욕을 부리다가는 지금까지 이룬 것마저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나아가야 합니다. ●애정:무조건 참고 지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상대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4, 9일 길일, 5, 8일 주의.	범띠 하면 된다는 신념과 ●운수:막힌 것 같고 답답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금전: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의욕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성취욕이 강해 집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좋은 조건의 일이 생기겠습니다. ●애정: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7, 8일 길일, 3, 9일 주의.
토끼띠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운수: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처세를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당장은 자신이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애정:짜증나게 하고 다들 만한 일이 있더라도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큰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 6일 길일, 4, 7일 주의.	용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운수:주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도움 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금전: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도 잡게 되겠습니다. ●애정:자식 같은 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자주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있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4, 6일 길일, 3, 5일 주의.	뱀띠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운수:집이나 사업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다면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니 실속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애정: 사랑의 계절에 춘삼월이 왔으니 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5, 9일 길일, 3, 6일 주의.
말띠 눈에 띄기 쉬운 ●운수: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때입니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어도 같이 다니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양띠 만족도가 높으니 ●운수:전문가나 경험자와 상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만족도가 높으니 호뭇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금전:땀 흘려서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거두어들리게 됩니다. ●애정:연애할 상대를 만나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어 갑니다. 잊혀져가던 설렘이나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 7일 길일, 4, 5일 주의.	원숭이띠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운수:내에감이나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웬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오는 일을 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금전: 망설이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애정:오해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살다보면 종종 오해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닭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운수:점점 자신감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용기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다가 손해만 부릅니다. ●애정:가족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지만 가족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개띠 끈기가 있어야 ●운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금전:코앞만 생각하면 적은 이득에 그치지만 길게 내다보고 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금전상태도 좋아지고 여러 면에서 호전이 됩니다. ●애정: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6, 7일 길일, 5, 8일 주의.	돼지띠 한 계단씩 차근차근 ●운수: 성공으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계단만 있다 생각하고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 길게 끌지 말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애정: 평소 때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개나 중매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톤헨, 방 렌트 단기/장기.
주방 사용 가능, 화장실 따로 사용.
T. 978-609-8749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 구합니다.
썸. 781-860-0171

김태호 PD의 새 예능은? "유재석 예능 or 北문화유산 or 창업"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김태호 PD의 복귀 시기, 그리고 새 예능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냈다.

27일 MBC에 따르면 김태호 PD는 오는 상반기 중, 빠르면 오는 5월 중 새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태호 PD가 복귀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예능은 '무한도전2'가 아닌 새 포맷의 예능이다. MBC 관계자는 "MBC가 광고주대상으로 진행한 행사에서 김태호 PD가 후배 PD들과 올해 상반기에 선보일 새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태호 PD가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무한도전' 시즌2가 아닌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북한문화유산이나 국민편당창업,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유재석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호 PD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MBC의 방송광고 연간 선포회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방송광고의 장기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광고주들에게 연간 방송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예능으로 복귀 계획을 밝혔지만 '무한도전' 시즌2 기획은 계속된다고도 전했다. 김태호 PD는 "무한도전"을 선보이기 위해 약 두달 정도 새롭게 돌아오려는 노력을 했지만 내부 시스템이 시청자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준비가 안됐다. 돌아오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PD는 지난해 3월31일 '무한도전' 시즌1 종영 이후 해외연수와 유럽 여행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

터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MBC도 올해 초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한 '2019년도 기본운영계획'에서 김태호 PD가 올해 상반기 복귀한다고 알려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MBC가 "예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한 만큼, 김태호 PD의 새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aluemchang@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마매뷰3' 한혜진·박나래 "패션부터 남자까지,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한혜진 박나래가 '마이 매드 뷰티3'에서 새로운 호흡을 선보인다.

27일 오후 처음 방송되는 JTBC4 '마이 매드 뷰티3'(이하 마매뷰3)에서는 모델 한혜진, 박나래, 러블리즈 미주, 위키미키 유정 4명의 MC가 첫 번째 호흡을 맞춘다.

관찰 예능프로그램에서 환상의 개그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혜진과 박나래가 뷰티 프로그램에서 만난 소감을 나눴다. 이들은 평소 "패션, 뷰티, 술, 남자까지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마매뷰3'에서 나눌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내비쳤다.

seung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오해가 낳은 멋진 단어들

오해는 풀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쓸 만할 때도 있다. 오해로 인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설로 자리를 잡아 또 다른 지식을 낳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Hamburger이다. 전에도 다루었다시피 Hamburger는 원래 독일의 도시 Hamburg 식이란 형용사였다. 언어학적으로는 [Hamburg + -er]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 길이 없던 일반인들이 ham-과 -burger로 분석하기 시작했고, 아예 ham- 대신에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게 되었다. 치즈를 넣으면 치즈버거, 새우를 넣으면 새우버거, 김치를 넣으면 김치버거가 된다. 미국에서도 cheeseburger, fishburger, baconburger등 비슷한 방식을 쓴다. 오해치고는 참으로 근사한 오해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멋진 단어들이 영어에는 꽤 많다. 우선 테니스. 필자는 아직도 테니스의 채점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1점부터 시작하는데, 테니스는 이상하게도 love, 15, 30, 40으로 채점이 된다. 규칙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다만 왜 0점을 love라고 하는지는 확실하다. 원래 '계란'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l'œuf의 소리를 옮기면서 가장 가까운 단어인 love를 쓴 것이다. 프랑스어에서는 계란이 동그라니까 0점을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영어 love는 정말 뜬금없다. 프랑스어 l'œuf를 음성전사한 것이라는 역사를 모른다면 테니스 애호가는 정말이지 아무 관련도 없는 단어와 숫자의 자의적 관계를 외워야 한다. 오해치

고는 뜬금없는 오해다.

필자는 루이지애나의 크로피시를 좋아한다. 윌리엄 포크너가 살던 집, 밤새도록 재즈를 연주하는 시내, 라틴쿼터 등을 돌아다닌 후 다운타운의 한 음식점에서 맛본 크로피시는 그 매운맛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케이준 스타일의 양념과 멕시코산 고추기름에 담가 찢 크로피시는 맵기로는 매운 닭발보다 더했고 고소하기로는 랍스터보다 더했다. 그 중독성이란 가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크로피시는 영어로 crawfish라 쓴다. 고대영어 시절에는 프랑스어 crevice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낮설게 들려서 곧 crayfish라 쓰기 시작했다. crevice는 crevice의 이철자로 갈라진 틈을 말하니까 가재의 갈라진 걸 껍질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사실 craw fish는 가재니까 어떤 의미에서도 fish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루이지애나에서 crawfish가 일반적인 fish와는 달리 '기어다닌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crawfish라 부르기 시작했다. crawl은 '기어다니다'란 뜻이다. 그러다가 중간의 'l'이 묵음화되면서 crawfish가 되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스페인어를 열심히 배우던 시절 필자는 <라 쿠카라차>란 노래를 배운 적이 있다. 그런데 cucaracha란 단어는 영어에 도입되면서 엉뚱하게도 cockroach(바퀴벌레)로 옮겨진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명체 중의 하나라는 바퀴벌레는 스페인어 cu-

caracha에서 영어의 cockroach로 옮겨진 후 아예 첫 부분을 떼어버리고 roach라 불리기도 한다. cock(수탉)과 roach(바퀴벌레)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리만을 옮긴 음성 전사였다.

인삼은 사람을 닮은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삼을 뜻하는 영어 mandrake도 그와 유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원래는 라틴어 mandragoras에서 왔다. 영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mandragon으로 할지 아니면 mandrake로 할지 백여년간 고민을 하다가 17세기 중엽에 mandrake로 낙착을 보았다고 한다. 앞에 있는 man은 뿌리가 사람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인삼과는 달리 mandrake는 독성이 있어서 약용으로만 쓴다.

piggyback(등에 업다, 화물을 싣고 저장화차로 수송하다)은 셰익스피어가 죽은 1564년 이전에는 pick pack으로 쓰였다. 말 그대로 물건을 들어 올려서(pick) 짐을 꾸리고(pack) 다시 등짐(back)을 지고 옮겨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반영하여 pick-a-pack이 되었다가 등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pick-a-back으로 바뀌었다. 중간의 /a/가 /i/로 바뀌면서 pickiback이 되었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piggyback으로 정착되었다. 그 의미도 마치 돼지처럼 아이를 등에 태우고 무릎과 두 손으로 기어 다니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TBO PLAY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KBS MBC SBS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TBO PLAY

KBS

MBC

SBS

tvN

Mnet

Olive

OCN

STORY ON

OnStyle

경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축**

대한민국 안마의자 1위 기업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판매!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용돈보다
안마의자!

전신마사지는 기본,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까지
뇌피로 시대의 새로운 해법,
바디프렌드 브레인 마사지

BODYFRIEND



바디프렌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브레인 마사지란?

특허받은 바디프렌드만의 기술 뇌파 유도 사운드 - 바이노럴 비트
뇌파 유도 사운드 (바이노럴 비트)와 스페셜 마사지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입니다.

▲ 특허 제 10-1853928호 : 브레인 마사지를 수행하는 안마의자 ▲ 특허 제 10-1853927호 :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안마의자



브레인 마사지 임상 입증
SCI급 논문 게재!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 및 바이노럴 비트(브레인 마사지)가
정신적인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 등에 미치는 영향]
의학 분야의 국제 SCI급 저널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브레인 마사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 입증**

뇌피로 회복속도
8.8 배증가

집중력 지속력
2 배증가

기억력
2.4 배증가



렉스엘 브레인



파라오 S 브레인



파라오 브레인



팬텀블랙 브레인



팬텀 브레인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84회

자연스러움이란?!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자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나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아주 작은 들풀이나 들꽃을 보다가 감동에 취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에 더욱 신비하고 경이로운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어느 특별한 종교를 들추지 않더라도 절로 자연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나온다.

"자연이란 낱말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도덕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 도덕경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는 인간 사회에 대해 대응하여 원래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 또는 우주의 순리를 뜻한다.[3] 도덕경에 나오는 자연은 현대어의 자연과 달리 명사가 아닌데, 원래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도덕경 주해에 '천지임자연(天地任自然)'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지'(하늘과 땅)는 현대어의 자연(Nature)이고, '자연'은 '스스

로 그러하다'라는 뜻이므로, 이를 요즘말로 옮기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에 있다'라는 뜻이다."

"한편 유럽의 여러 언어에서 자연을 뜻하는 낱말은 라틴어 natura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영어와 프랑스어의 nature, 독일어의 natur,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의 natura 등이 그것이다. 라틴어 natura는 '날아진 것'이라는 뜻으로, 그리스어 φύσις의 번역어로 채택되어 '본성', 즉 우주나 동물, 인간 등의 본질을 가리키는 낱말로 사용되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이란 낱말은 서구의 nature를 번역하여 들여온 것으로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 비롯된 인간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것이란 관념과 17세기 과학혁명 이후의 자연주의적 관점 등이 함께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옛그제는 친구와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러운 것이 편안해서 종잡아를 시작으로 자연스러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 자연스러움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들풀과 들꽃 산과 바다를 예로 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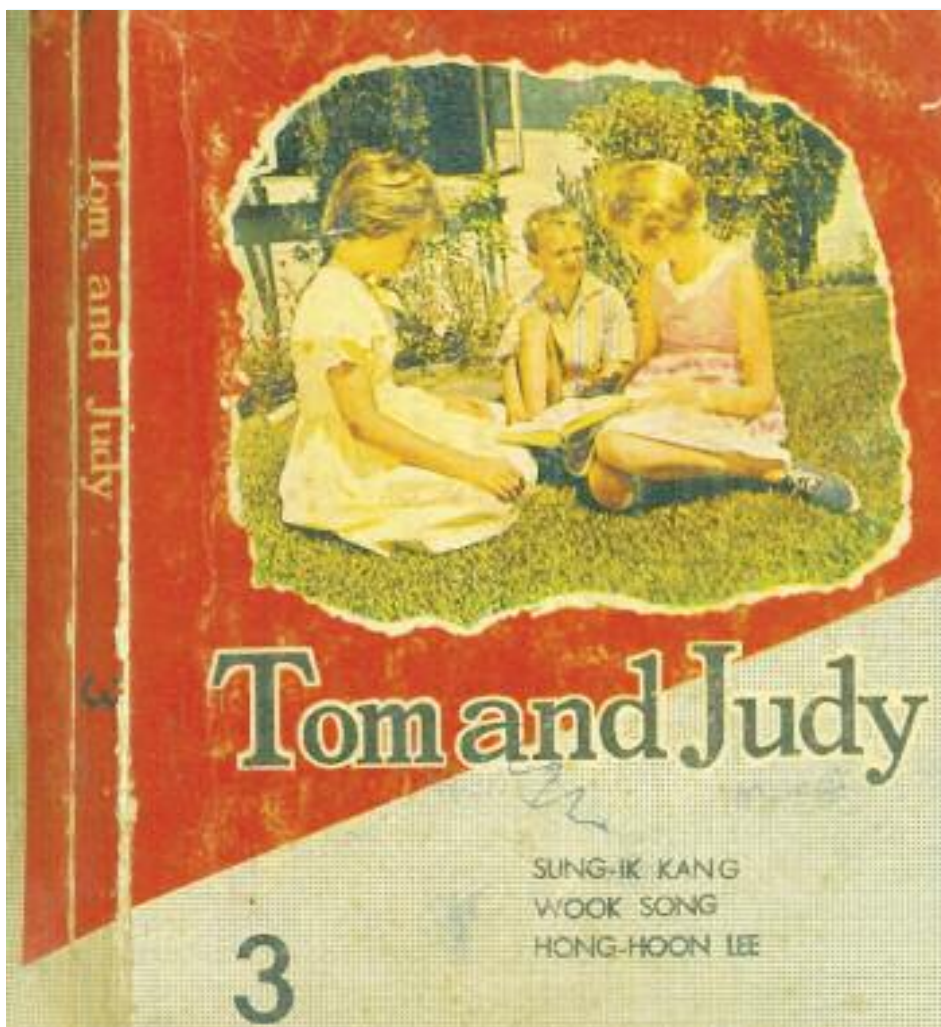
있지 않을까 싶다. 계절마다의 냇길에서 만나는 자연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만나도 단 한 번도 똑같지 않았으며 느낌 또한 같은 때는 없었다. 들의 꽃이나 산을 오르며 만나는 숲의 나무에서의 느낌도 같았으며 바닷가에서 만나는 작은 모래 알을 시작으로 자갈돌 돌멩이 그리고 크고 작은 바위들마저도 그랬다.

자연은 이렇듯 누구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꾸미거나 감추거나 덮지 않고 스스로 있다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며 살았던 자연스러움이 문득 내게 커다란 '화두' 하나를 던져 준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듯 자연스러움과 어느 각도에 있으며 어느 만큼의 거리에서 서 있는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연과의 떨어진 그 거리만큼 좁혀가는 그 과정이 자연스러움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세상에서 상한 마음 지치고 찢긴 상처의 마음들을 치유하고 치유받으며 제 색깔과 제 모양을 찾는 것 말이다.

창조주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만들었다는데 그 만들었던 목

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저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그런 생각으로는 삶이 너무도 어이없지 않은가. 삶에서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궁금하지 않은가 말이다.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가치관에 대해 가끔은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특별히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을 올라보니 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 삶의 목적이 확실해야 가치관의 정립이 선다.

우리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왔고 또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잇고 살며 망각해 버리고 사는 것이다. 스스로를 너무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바쁘게 살다가 자연스러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에서 너무 멀어지면 되돌아올 때쯤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 할만큼의 허탈함과 허망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과 자신 안의 또 다른 자신과 담담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할 일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Tom and Judy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유하, 시골국민학교를 추억함 중에서)

중학교에 입학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Tom and Judy. 일학년때 영어교과서였다. 그때 탐과 주디는 내게 'How are you?' 'I am fine, and you?' 를 가르쳐 줬다. 내게 그때 탐이 그 탐뿐만은 아니었다. 탐 소여도 있고, 오두막 캐빈의 탐 아저씨도 있었다. 한국엔 철수와 영희가 있듯, 미국엔 탐과 주디가 흔한 이름인가 했다.

패트리오트 슈퍼볼 게임을 볼 적이다. Tom이란 이름이 새록거렸다. 쿼터백 이름이 탐 브레이디이다. 탐이란 이름이 어디 탐 브래디 뿐이라. 영화배우 탐 헵크스, 탐 크루즈, 게다가 만화영화엔 탐과 제리가 등장한다. 탐은 고양이인데, 제리는 쥐이다. 나한테는 탐이 쥐인것 같다.

내겐 영화배우 탐 헵크스가 괜찮다. 그와 무슨 친분이 있는건 아니다. 단지, 그의 영화를 몇편 봤을 뿐이다. 그 배우는 그닥 잘 생긴것도 아니면서, 뛰는 모습도 아니다. 하지만 친근하게 여겨진다. 오래전 부터 알고 지내던 편한 친구

마냥 느껴지는 거다.

편안한 배우라면야, 한국엔 안성기가 있을 것이다. 그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인터뷰하는 이가 답답하더라. 특이한 게 보여야 뭐라도 기사화 할수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다. 평범한 옆집 아저씨를 만난것 같이 말이다. 또한 그는 말하기전, 으음, 하고 한박자 쉰다고 했다. 느린 대답에 더 한층 답답하더라는 거다. 세상에 모든 영화배우들이 답답할리는 없다. 혹시 안성기의 천주교 세례명이 도마는 아닌가?

탐이란 이름의 압권은 성경의 사도使徒도마 일 것이다. 안중근의사 세례명이 도마라 들었다. 그런데, 톰인가 아니면 탐이라 불러야 하는가? 탐이 무리없어 보인다.

한국은 입학시즌이다. 입학을 축하한다. 참, 탐과 주디는 뉴욕에 살고 있었다. 지금도 잘 있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요한 20:28)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나 역시 남들처럼 철수와 영희와 바둑이와 함께 놀았다. 철수와 영희란 이름이 흔했던가 기억할 수는 없다. 강아지 이름으로 바둑이는 흔했지 싶다. 쫓이나 베스나 도꾸만큼 많았다. 철수도 영희도 바둑이도 꽤나 늙었겠다. 시인 유하의 시 한 구절이다. ...

아직도 내 입 안에 사는 철수와 영희, 아련하게 바둑이를 부르며 동글게 동글게 그 착한 영혼의 이름들로 충만한 운동장아, 다시 가고 싶어서 환한 금빛 모래알의 은하수

“백년의 봄”

3.1 운동 및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헌정음악회

Saturday, March 16, 2019
at 4:30 PM

Dedication Concert

Philharmonia Boston
Soloists of New England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Ave, Medford

100

주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후원: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Tufts KSA

TICKET: Free admission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투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인류가 만든 최고의 통치이념으로 생각한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2천년이 넘게 계속 살아 남아서, 현대의 주 통치이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최근에 다른 각도로 조명되고 있다. 2천년 전 그리스에서는 오직 시민권 남성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르다. 10년 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표경선에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경쟁했다. 나는 힐러리 클린턴의 정치적 경험과 영향력이 신참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의 직장동료가 내뱉은 한마디에 ‘아하!’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 동료 왈 “버락 오바마가 이긴다. 미국에서는 흑인 남자의 투표권이 여성의 투표권보다 먼저 합법화 되었거든. 흑인남자의 인권이 백인여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

민주주의에도 우선권이 있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부유상류층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접선거를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의 한표와 거리의 부랑자의 한표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지적 모멸감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최대 금융회사에서 작성한 경제분석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 시스템의 오류로 보고 있었다. 어떻게 천만장자의 한표가 정부 영세민 보조금에 의지하는 사람의 한표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천만장자가 아닌 나에게 참으로 불의한 사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유엔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고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유엔은 민주주의 모임이 아니다. 유엔에는 소수의 최고의 영향력을 갖춘 모임이 있다. 유엔 안보리라고 부르는 이 모임에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모여서 인류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투표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 이사국들과는 달리,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은 안 바뀐다. 또, 아무리 이사국에서 다수표결로 통과된 의견도 상임

이사국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부결이 된다. 이 시스템은 마치 로마 공화정의 귀족 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상임 이사국의 입장에서 세계경제, 정치, 군사력, 기술의 최상 최대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인류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미국의 한표가 인구 4만명도 안되는 리히텐슈타인과 같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래도 해결책은 있다. 가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릴적에는 부모가 거의 모든 결정을 한다. 어느 집으로 이사할지, 무슨 차를 구입할 것인지, 어떤 가구를 구입할 것인지 등등.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성숙해지면 가족회의를 한다. 이번엔 새로 차를 구입하려는데 미니 밴을 살 것인가? 전기차를 살 것인가? 하이브리드를 살 것인가? 등등. 아이들의 의견도 이제는 부모의 의견과 같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국민들도, 국가들도 성숙해지면 그들의 의견이 소수의 기득층의 눈에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

고 결정하는 행위는 어떤 방향에서 봐도 모순이 될 것이다.

부모의 자식사랑과는 달리 미국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이 기심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면서 자식의 성공을 뒷바라지한다. 그런데 기득층에게서는 아직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타인을 위한 사랑이 이기심을 이긴다면 인류는 더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천만장자, 억만장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65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하종의 어머니 미실은 남편 세종 외에도 첫 사랑 사다함을 비롯하여 많은 정인情人들이 있었다. 먼저 남편 세종과는 하종공과 옥종玉宗공을 낳았고, 5세 풍월주를 역임한 사다함과는 후손이 없다. 다음으로 진흥왕을 모시며 반야般若공주, 난야蘭若공주, 수종전군壽宗殿君을 낳았고, 진흥왕의 아들이자 진평왕의 아버지인 동륜태자와는 애송艾松공주를 낳았다. 진흥왕은 애송을 자신의 딸로 알고 지냈다. 그리고 7세 풍월주를 역임한 설원랑薛原郎과는 16세 풍월주를 역임한 보종寶宗공을 낳았다. 또한 미실은 자신의 친동생이며 10세 풍월주를 지낸 미생랑과도 사통하였다. 다음으로는 진흥왕의 차남이자 동륜태자의 동생이며 제25대 임금인 진지왕에게도 색공을 하였다. 그리고 제26대 진평왕을 색도色道하며 보화寶華공주를 낳았다.

당시 왕궁에는 진흥왕의 정비 왕후 사도思道를 비롯하여 많은 후궁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실美室, 보명寶明, 옥리玉理, 월화月華공주는 사도왕후와 함께 왕을 가까이서 모신 대표적인 궁주들이지만, 진흥왕은 누구보다 미실을 가장 총애했었다. 미실은 교태와 가무 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능하여 왕이 조정에서 국사를 논할 때도 동행하여 문서를 참결하며 모든 업무를 보좌하였다. 이 무렵

미실이 하종에 이어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그가 동륜태자의 딸인 애송공주이다. 그런데 진흥왕은 자신의 딸로 알고 공주에 봉했다. 당시 하종은 세살이었는데 애송의 동복남매였기에 진흥왕은 그에게 사지舍知의 관위를 내렸다. 사지는 13등급의 경위京位이다. 이에 진흥왕은 하종에게도 왕궁에 들어와서 기거할 수 있는 특전을 베풀었다. 그리고 미실을 더욱 총애했어 곧 반야공주를 낳았고, 이와 함께 하종의 관위를 대사大舍로 승진시켰다. 대사는 12등급이다. 다음에는 난야공주가 태어났고, 하종의 관위는 나마奈麻가 되었다. 나마는 11등급이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수종전군이다. 하종의 관위 또한 승진되었다. 10등급의 대나마大奈麻의 관위를 받았다. 진흥왕은 미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 명의 자식들에게(애송공주는 아들 동륜태자의 딸이지만 진흥왕은 몰랐다) 동복 형인 하종에게 호형하도록 했지만, 하종은 자신의 관위가 낮았기에 공주들과 전군으로 부터 형이라 불려지길 꺼려하였다. 이에 진흥왕이 하종을 전군殿君으로 봉하려 했지만 담당 관원의 반대로 그 뜻을 거두었다. 전군의 아들을 또 전군으로 봉함이 부당하다는걸 직언한 관원이 삼호공三好公인데, 그는 미실의 친척이었다. 왕이 하종을 전군으로 봉하려 할때 미실은 기쁜 내심을 들어내지 않았지만, 삼호공의 반대로 무산되자 노여움을 감추지 않았

다. 내질內秩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추천한 친척인 삼호공을 호출하여 많은 질책을 하였다. 이에 삼호공은 무리를 하여 전군에 봉해지기 보다는 부마가 되는 길이 더 상서祥瑞로울 거라고 충언하였지만, 끝내 미실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삼호공의 자리는 박영실의 아들인 노동弩同에게로 돌아갔다. 하종은 후일 삼호공의 예언처럼 부마가 되었다. 그는 두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정처미모낭주는 7세 풍월주 설원랑의 딸이고, 2처은륜공주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의 막내딸이다. 미모낭주는 딸 유모와 영모, 아들 모종공을 낳았다. 동생 영모는 김유신의 정처이고 유모는 2처이며 모종은 22세 풍월주 양도공의 아버지이다. 하종의 2처은륜공주는 딸 하희와 월희, 아들 효종공을 낳았다. 하희의 아들 춘장공은 23세 풍월주가 되었다. 화랑세기에는 이렇게 전한다.

[태자의 딸이 태어나자, 제帝는 알지 못하고 자기의 딸로 알고, 애송艾松공주로 봉했다. 공은 애송의 형으로서 나이가 겨우 세 살이었는데, 사지舍知의 위를 내렸다. 궁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애송의 벗이 되었다. 공은 비록 나이가 어렸으나 우애가 지극히 도타워, 공주가 울면 곧 따라서 울었다. 제帝가 이로 인하여 총애했다. 반야般若가 출생하자 공은 관위가 올라 대사大舍가 되었다. 난야蘭若가 출생하자 관위가 올라 나마奈麻가 되

었다. 수종전군이 출생하자 관위가 올라 대나마大奈麻가 되었다. 이에 앞서 제帝는 공주 등에게 공을 형으로 부르게 했으나 공은 위가 낮아 감히 형으로 자칭하지 않았다.

이 때에 수종전군이 처음 태어나자 제帝가 크게 좋아하여 공을 전군殿君으로 봉하여 전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했다. 미실전주는 속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나 겉으로 겸양을 베풀었다. 그 때 삼호공三好公이 내질內秩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따져 말하기를 “사자私子가 전군이 되는 것도 이미 참람된 것인데, 하물며 사자私子の 아들이겠습니까?” 했다. 제帝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그만 두었다. 미실은 이에 삼호를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아재비는 나 때문에 내질을 관장하는데 나의 아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했다. 삼호가 웃으며 말하기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은 상서로운 일이 아닙니다. 급히 차면 기울어지고 서서히 이루어지면 완전합니다. 비록 전군이 아니더라도 또한 부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필 제도를 넘어서서 못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린 후에 가하겠습니까?” 했다. 미실의 노여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삼호는 이에 내질을 사직했다. 미실은 이에 영실公英矢公의 아들인 노동弩同을 천거하여 내질을 관장케 했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절술, 흰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co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2018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8)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3)

이번주는 연구원/방문교수 중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된 사람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연구원/방문교수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미국내 원천소득'이란 미국내에서 번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
-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등이 있다.

그런데 위의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이라도, 근로소득 중 2년간의 소득(한미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 은행의 이자 소득(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그리고 배당소득과 gambling소득 중에도 일부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거주자의 세금계산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and business),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1.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의 과세방법

급여와 같이 미국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다만, 비거주자는 시민권자에게 적용된 규정 중 아래와 같은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

첫째: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한국 거주자(미국의 Nonresident alien)인 연구원의 세금보고형태(Filing status)로는

- ① 독신자 (Other single nonresident alien),
- ② 결혼한 비거주자 (Married nonresident alien) 그리고
- ③ 미망인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등 3가지가 있다.

그런데 위의 '② 결혼한 비거주자'로 신고 하더라도 세율은 반드시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이나 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의 거주자'로서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따로 떨어져 사는 등 'living apart'규정을 충족하면 Single로 신고하고, 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는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 세율도 적용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거주자'로서 미망인 (Widow(er))의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Qualifying widow(er)'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못한다.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세액공제(Tax credit)도 제한적이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추가자녀 세액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기타부양가족공제 (credit for other dependent),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그리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등이 있다. 이 중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의 경우, 결혼한 비거주자는 미국시민권자나 거주자인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하거나 living apart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나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the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 등을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와 함께 거주자로 부부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소득의 과세방법

배당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은 수입금액(또는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조세조약에 더 낮은 세율을(제한세율이라 함)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참고로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 보아 임대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16)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오래전부터 추천했다. 뮤추얼 펀드는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 수익률 결과가 월스트리트 신문에 발표되었다. 제목은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을 향상하려고 했지만 큰 난관에 봉착했다. (Stock pickers hit bump in comeback bid, Justin Baer, WSJ, February 10, 2019)’ 는 기사다.

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지수(Index)를 따라서 즉 펀드 매니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이다.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한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회사 주식

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설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한다.

뮤추얼 펀드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미래에 유망한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한다. 펀드 매니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을 한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의해서 투자할 회사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다. 한 예로 S&P 500은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 500개 회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을 회사만 선정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뮤추얼 펀드 투자자이다. 언뜻 생각하면 정보력도 많고 투자 돈도 풍부하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와 주식 선별가가 머리를 모아서 회사를 선별하기에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분명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

지 않다는 것을 실제 통계가 보여준다.

지난 3년과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5% 그리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89%라는 사실이며, 지난 15년의 통계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는 무려 92%라는 사실 (Indexes Beat Stock Pickers Even Over 15 Years, WSJ, April 13, 2017)이다.

뱅크드(Vanguard) 창업자인 잭 보글은 1976년 금융산업 처음으로 인덱스 펀드를 시작했다. 그 당시 주식전문가는 회사를 평가해 보지 않고 무조건 500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40여 년 후 현재 인덱스 펀드에 투자된 돈이 미국 주식시장 전체 5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덱스 펀드의 좋은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미국에 이민 온 우리 한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이들

키우며 바쁘게 생활하는 무지의 한인을 이용하여 투자 경비는 많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종목이나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

사람의 본성이 변화를 싫어하기에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매우 어렵힌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경비가 많은 투자 종목이나 금융상품(어뉴이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결과는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정신이 나간 거와 같다. (One definition of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필자 회사의 모든 고객(Client)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ETF 종목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다. 평균 투자 경비가 단 0.1%이기에 주식시장에서 나온 수익률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아이들 학자금이나 은퇴자금을 인덱스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해서 운용하여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소식 Update

● H-1B

약 4주 뒤면 올해 H-1B (쿼타가 적용되는) 이 시작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와 바뀐것은 추천 순서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6만개의 쿼타를 위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다. 이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 중 미국석사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2만개의 쿼타를 위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H-1B 신청에는 어느때 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됐고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적체가 어느 때 보다 심했고 추가 서류제출 요청 (RFE) 등으로 아직까지도 작년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급행신청으로 전환해서 올 접수 전에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거부가 되더라도 올해 접수 시점 전에 결과를 알게 되면 올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2018년 12월21일 이전에 접수된 모든 H-1B 신청서에 대해 급행신청을 허용했으니 아직까지도 신청서가 계류 중인 분들은 대부분 급행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른 방법은 계류 중인 신청서의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신청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은 동일한 신청서에 대한 이

중신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법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법의 주된 목적이 추첨등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니 해가 바뀐 동일 신청서는 관찬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민국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실 경우 반드시 cover letter 에 작년과 동일한 신청서라를 것을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시는 것이 좋습니다.

● I-131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에 대한 적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신청서가 계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신청으로만으로도 미국내 합법적 신분을 주기는 하지만 1년 이상 계류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임시 여행허가서 (I-131, Advance Parole)입니다. 관련법규는 임시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는 경우 (여행, 방문 등) 임시 여행허가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임시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I-485가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 유효한 첫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로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첫번째 임시 여행허가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체류 후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관련법규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한 자의 신청서는 기각한다) 때문에 두번째 신청서는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다행히, 이민국이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경우는 두번째 신청서의 기각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새로운 지침이 현지 심사관들에게 적용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485 신청이 계류 중이신 분들은 해외여행이나 방문에 신중하시기 당부드립니다.

● I-539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쓰이는 신청서 (I-539) 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있습니다.

신청서 개정

- 오는 3월11일 개정된 신청서가 배부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은 이전의 신청서 개정과 적용날짜가 다릅니다. 이 전에는 신청서

가 개정되도 몇주 정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번개정은 그런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3월11일 개정판이 배포되고 3월11일부터 개정된 신청서만 받습니다. 또한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개정 전 기존 양식은 3월8일까지만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신청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추가된 신청서 (Form I-539A)

- 기존에는 주신청자의 자녀들은 신분변경서에 기재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부터는 자녀들은 따로 Form I-539A 를 작성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자녀들은 서명도 해야 합니다.

Biometrics

- 대부분의 비이민 신청에는 지문채취가 요구되지 않지만 이번 개정으로 Form I-539 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지문채취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이러한 조건이 추가됐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지문채취가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신청료도 부가됐으니 착오없이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H-1B 를 신청하는 신청자들 중 동반가족이 있는 분들은 개정된 I-539 법이 적용됩니다. 신청서 양식, 추가 신청서, 추가 신청료 등 주의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 617.254.4654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

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폴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턴 외곽 동양 식품점, 술, 로타리
연매상 \$800k, 매매가격 \$100k+스타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도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피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폴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뉴턴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18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프레밍햄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렌트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